

2012 Kampong Cham Mission Nov. 9-11

귀한 동역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국립대학의 정지웅 선교사입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지난주 제자들과 함께 감똥짬 성광고아원으로 작년에 이은 두번째 단기선교를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들을 동역자님들과 나눕니다.

2012년 11월 9일 (금) 일찍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차로 3시간 거리인 감똥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 해는 교회 사역 이후 신앙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깊이있는 단기선교였습니다. 나아가 작년은 시작의 의미였다면, 올 해는 한걸음 나아가 하나의 주제 아래 일관된 내용을 구성하는 보다 교육적 선교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 첫번째 주제는 창조 ^{Creation}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떠나기 3주전에 창조과학 회원이신 교수님 한분이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내용면에서 더욱 탄탄하였습니다.

1년만에 다시 찾은 저희들을 아이들은 대부분 알아보고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먹고, 놀고, 자고,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과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소통되는 이들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방법도, 능력도 저와같은 외국 선교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보석같은 이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뛰는 모습, 무엇보다 화려하고 멋진 잔치였습니다. (하나님도 보시며 '재밌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녁시간마다 대학생인 제자들은 왜 공부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눴고, 아이들은 경청하고 또 자신의 꿈을 돌아가며 발표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하일라이트는 바로 깜짝 생일파티였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 갑자기 불이 꺼졌고, 이후 축복송이 준비된 4 개의 케익과 함께 아이들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선교사님께서도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



서로는 내내 참 잘 어울렸습니다.

주님으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형제됨이었습니다.



고아원을 섬기시는 김영익 선교사님께서 인근의 고무농장 마을에 지붕을 올려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지, 오가는 길 내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50분 떨어진 시골의 제자^{짜겔} 집으로 갔습니다. 어부이신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장 큰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나무 고기배를 태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메콩강 사이에 있는 모래섬에 가 그곳의 어부 친구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순간 예수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분을 잠시 더 그리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짜겔 가족이 사람 낚는 어부 가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1부 설교로, 제자들은 헌금 특송을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모아주신 아이들을 위한 연필, 노트 등의 학용품과 쌀^{500kg}을 감사함으로 드린 후, 아쉬운 발걸음을 프놈펜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사진과 글로 담지 못하는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 자리에 있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가 봅니다) 저희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역해주시는 한분 한분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멋진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2012년 11월 17일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 올림

* 고아원 사역의 문의나 도움을 주실 분은 김영익 선교사님(youngikkim0204@yahoo.com)께 연락주세요

